

어수선한 연말·연초 식품가격 줄줄이 인상

콜라·사이다·과자류 등 대폭 인상 “올려도 너무 올린다” 소비자 비난

“올려도 너무 올리는 것 아닌가요.” 콜라에 이어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도 값을 올린다는 소식에 주부 김모(41)씨는 경기도 어려운데 걱정이 앞선다고 푸념했다. 연말 들어 음료·제과 등 식품업체가 주력상품의 제품가격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소비자의 눈총을 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음료·제과업체를 중심으로 콜라, 사이다, 커피 등

음료수와 스낵, 과자류의 가격이 새해를 전후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오리온은 지난 26일 초코파이 가격을 12개들이 1상자 기준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가격은 지난해 8월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인상, 1년 반 만에 무려 1600원이 올랐다. 이밖에 오리온의 후레쉬베리도 기존 3000원에서 3200원으로, 참봉어 빵과 고소미도 각 8%, 25% 가격이 인상됐다.

해태제과도 에이스를 비롯, 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7% 상향조정한다. 에이스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오른다. 오 예스는 4200원에서 4800원으로 14.3%, 흥분볼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로 인상된다. 연양강은 800원에서 850원, 신쫄이 550원에서 600원, 생생 99% 캔디는 2000원에서 2050원, 치킨통통은 1500원에서 155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앞서 롯데제과도 지난달 해바라기 초코볼, 석기시대, 몽셀 크림 2종류, 몽셀 카가오 2종류, 몽셀 딸기 2종류 등 모두 9종의 가격을 마트 기준 평균 11.1% 올렸다.

이어 내년 초 나머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해 구체적인 폭과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카콜라 역시 지난 24일 평균 6.5% 가격 인상을 공표했다. 이번 조정에는 콜라를 포함해 스프라이트, 파워에이드, 조지아 커피 등 주요 제품군이 대부분 포함됐다.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4개월만으로, 매해 1번 정도 이뤄져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코카콜라에 이어 펄스콜라와 칠성사이다를 판매중인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나머지 음료업체도 조만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석을 전후해 지난 9월 말에는 원

유가격 인상에 맞춰 우유 가격이 잇따라 상향조정 됐다. 흰 우유 가격이 대형마트 기준 ㄹ당 250원 안팎으로 인상되고, 가공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업계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억눌려 온 만큼, 새해를 전후해 잇따라 인상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라 분석했다.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된데다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내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 해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미처 가격을 올리지 못한 기업의 경우 내년 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농협, 복지시설 방문 나눔경영 실천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부장 이상훈)는 27일 (사)전국새농민회 광주시회(회장 박종길) 회원들과 함께 광산구 신촌동 ‘성심’의 집을 방문, 농협광주본부의 협찬 물품과 새농민 회원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백미 240Kg, 배, 가지, 딱, 토마토, 애호박, 단감, 방울토마토 등 새농민 회원들이 직접 가공·생산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심의 집에 전달했다. 이상훈 본부장은 “우리 주위의

무의탁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 처한 불우이웃에 대한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새농민회 광주시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새농민상을 수상한 선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생산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심의 집에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저금리·100세시대 대비 NH농협생명 상품 ‘인기’

연금·저축보험상품 등 위험보장·세금혜택도

최근 저금리와 더불어 100세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금(저축)과 위험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70% 정도가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현실에 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통한 효과적인 노후보장과,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NH농협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들은 위험보장과 노후준비, 저축 기능에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생명의 ‘연금보험상품’과 ‘저축보험상품’은 모두 10년 이상 유지 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고, 중도인출과 추가납입기능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배당상품’으로 배당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할 수 있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테크 상품도 있어 고객들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히 출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고령자 전용상품 ‘NH살바암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간편심사로 가입할 수 있어 그동안 연령 제한과 유병력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다. 농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산재보험 대용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타사에는 찾아볼 수 없는 NH농협생명 유일의 농업인 전용상품이다. 이외에 위험보장을 원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추천하고, 재해보험과 갱신형 정기보험, 암보험은 1~2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가입이 용이하다. NH농협생명 전남총국 김흥국 총국장은 “전남이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 NH연금보험과 NH살바암보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 세계개편에 따라 비과세 장기저축상품 가입과 자녀명의로 1인 1비과세 보험상품 가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전남농협 녹색한우 최우수상

전남농협 축산물 브랜드인 녹색한우와 NH순한한우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3년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평가’ 결과 한우공동브랜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한우 개별 브랜드 부문에서 합평축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 축산물 브랜드인 녹색한우와 NH순한한우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3년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평가’ 결과 한우공동브랜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한우 개별 브랜드 부문에서 합평축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조금 경쟁 이통 3사에 1천억 과정금

방통위, 역대 최대

방통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천억여원의 과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

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이 같은 과정금 금액은 지난 7월 3개사에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정보통신부 비상시작위원회 시정 조치 포함해 역대 최대이던 2006년 732억 원(SK텔레콤·KTF·LG텔레콤·KT 등 4개사)보다도 300여억원 많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연필뉴스

새해 기대에 상승... 외국인 매수세 계속될 듯

올라간 증권시장을 돌아보면 코스피지수는 18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지난주말 2002포인트로 마감해 지난해 말 보다 +0.25%의 상승에 그쳤다. 2013년 국내증권시장의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7월 1일 개장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이 44일간 13조 9000억원을 순매수해 역대 최장 연속 순매수기록을 수립했다. 2012년 웅진그룹에 이어 올해에도 동양, STX 등 건설, 철강, 조선 중심의 중견 그룹들이 재무적 위기를 보이며 그룹이 해체 되었다. 특히 동양그룹이 지난 9월

개선이 되고 있다. 유로존 또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기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중국의 경우에도 연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동반 하강하거나 엇갈린 방향성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2014년 1월은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 주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차별화되면서 수익률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약점이었던 저조한 성장세, 기업실적 부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 약화 등은 새해를 맞이하며 이미정국개대비 견조한 성장세와 환율안정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외국인 수급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주시장은 이제 월요일 하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매해 1월은 새해 정부정책 발표가 집중되는 이른바 1월 효과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중국 긴축과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1월 효과는 사실상 상당부분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2014년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미국은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계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유로존 또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기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중국의 경우에도 연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동반 하강하거나 엇갈린 방향성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2014년 1월은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 주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차별화되면서 수익률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약점이었던 저조한 성장세, 기업실적 부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 약화 등은 새해를 맞이하며 이미정국개대비 견조한 성장세와 환율안정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외국인 수급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은 본격화될 4분기 어닝시즌을 감안해 실적모멘텀이 양호한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주점점장>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합정)점 02-276-0367, 9강남점(강남)점 02-347-5110, 중도2점(금강)점 02-703-0220, 송파점(송파)점 02-419-3388, 선릉점(선릉)점 02-356-1838, 경인점(구 서인회)점 02-221-2288, 부평점(부평)점 02-617-1110, 수원점(수원)점 031-246-5110, 오송점(오송)점 031-241-6655, 안성점(안성)점 031-493-0110, 1평점(평택)점 031-698-6110, 용인점(용인)점 031-306-1000, 오산점(오산)점 031-378-4183, 부천점(부천)점 031-239-4400, 남양주점(남양주)점 031-816-8800, 서안점(서안)점 018-0016, 남부점(남부)점 018-256-7200, 울산점(울산)점 052-286-2283, 경남점(경남)점 053-451-5110, 충청점(충청)점 051-697-4000, 강원점(강원)점 033-454-4440, 서울점(경기)점 033-426-1511, 남양주점(남양주)점 033-426-7576, 경북점(경북)점 054-444-5110, 충청점(충청)점 054-394-2246, 광주점(광주)점 02-225-5110, 광주점(광주)점 02-225-5110, 대전점(대전)점 042-254-5110, 대전점(대전)점 042-222-3388, 대전점(대전)점 042-225-4300, 충청점(충청)점 051-653-2988, 광주점(광주)점 041-952-5110, 충북점(충북)점 043-222-1177, 충청점(충청)점 043-222-1144, 강원점(강원)점 033-426-0586, 순천점(순천)점 061-553-6110, 제주점(제주)점 064-753-4355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GMP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점(광주)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